

제12장

네째 환상: 일곱 상징적 인물(12-13장)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은 교회와 세상과의 영적 전쟁 뒤에는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환상은 사단이 그의 세 대리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벨론’을 데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그린다.

1. 용과 여자(12장)

12장은 용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는 환상이 묘사된다. 그 여자가 아이를 배어 남자 아이를 해산하게 되자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하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만 올라가 버린다. 그러자 용이 화가 나서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려 하지만,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며,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1절은 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 별의 관을 썼더라(1절)

여기서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의 찬란한 빛이 감싸고 있는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된다. 해와 달과 별은 과거 요셉이 꾸는 꿈에 등장하였는데,

해는 야곱, 달은 라헬, 열한 별은 야곱의 열한 아들을 상징한다. 즉 해, 달, 별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에, 해와 달과 별에 감싸인 여자는 구약 시대의 교회임을 증거한다.

여인이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5절)다. 이것은 시편 2장 7-9절을 그 배경으로 한다. 시편 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여인이 낳은 남자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은 용에 대하여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9절)라고 소개한다. 사단을 상징하는 용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며,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3)이 있었다. 일곱은 ‘완전수’이다. 그런데 용의 머리가 일곱이었고, 그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단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은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에 용이 열 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 준다.

사단은 이렇게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사단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낳은 여인을 해하려하지만, 여인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사단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 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7-10절)

사단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사단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승리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창 3:15)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짓밟히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하려”(13절)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려 하자,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여 1,260일 동안 보호해 주신다. 14절 이하는 6절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으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좀더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간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곳이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점에서 여자가 “뱀의 닳을 피하여”(14절) 광야로 인도되어 보호를 받는 ‘세 때 반’의 기간은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세 때 반’은 1,260일 또는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으로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효과없이 끝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사단의 모방(13장)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은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해 싸우는 이야기다. 사단은 자신의 세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지만, 결국 사단은 처절한 패배로 끝나게 된다. 13장은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들 두 짐승을 따르는 ‘음녀’ 또는 ‘바벨론’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지를 보여 준다.

1)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1)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의 모양 또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12:3)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이 짐승은 용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7). 그런데 사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방하여 자기의 형상대로 짐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시다.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집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이러한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의 계획을 집행할 거짓된 아들 짐승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하기에 짐승은 ‘열 개의 뿔과 일곱 머리의 형상’을 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은 하나님을 흉내 내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신 것같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2절) 짐승에게 준 것이다.

짐승은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람들로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모방하여, “죽게 된 것 같은”(3절) 상태에서 회복됨으로써 온 땅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용은 그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위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4절)라며 선포한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출15:11)라는 말을 모방하여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짐승의 모양을 묘사한 2절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을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가진 짐승, 어디서 많이 본 짐승이 아니던가?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네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또 열 뿔이 있더라(단 7:3-7)

그렇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짐승과 동일한 모양을 한 짐승이었다.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첫째는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곰과 같았고, 셋째는 표범과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강했으며, 이는 쇠로 되었고,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 사자의 모양을 한 짐승이 곰의 모양을 한 짐승에게 잡아 먹히고, 곰 모양을 한 짐승은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에게,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은 열 뿔과 철의 이를 가진 짐승에게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시 최강이었던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떠한 제국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즉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단 7:17)고 설명해 주었듯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은 ‘제국의 왕’ 또는 ‘세상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당시 ‘바벨론’을 상징한다. 오늘날 바벨론 유적지에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의 동상들이 궁전 앞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증거해 준다.

곰은 ‘메대와 바사(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곰의 몸 한 쪽이 들렸다는 것은 곰의 몸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무거웠다는 뜻이다. 이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동맹하여 바벨론을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바사가 메데보다 강하여 바벨론에 이어 강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몸이 한 쪽 들린 곰으로 묘사한 것이다.

바사를 이어 헬라가 강대국이 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는 4명의 장군과 함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린다. 이런 이유로 헬라 제국은 새의 날개 넷을 가진 발 빠른 표범으로 상징된다. 마지막으로 헬라는 로마에 의해 점령되는데, 로마는 철무기를 가진 나라였고 10명의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였다. 이런 점에서 ‘철의 이를 가진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상징된다.

이러한 네 짐승은 모두 바다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 ‘최악된 세상’ 또는 ‘악’을 상징한다. 그래서 요한은 미래에 임할 천국에는 ‘악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한다’(계 21:1)라고 묘사하였다. 이런 점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권력’이나 ‘세상 제도’를 상징한다. 사단이 국가 권력이나 위정자들을 그의 대리자로 만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국가권력이나 세상제도를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정부나 세상을 더욱 믿고 따르도록 하며, 그것을 따르거나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에게 성령의 모조품도 있는가? 11-18절을 보면, 용처럼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한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11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 가진 어린 양’ 처럼 생겼다. 다니엘 8장 3절에서도 ‘두 뿔 가진 숫양’이 등장하는데,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당시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뿔’을 갖고 있다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처럼’ 말하였다. 이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성령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모방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며, 경배하도록 하고, 진리로 인도하신다(요 16:13).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 기사와 이적도 행하신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나온 짐승도 성령을 모방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믿게 하고, 따르며 경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큰 이적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12절)는 말은 사람들로 세상의 왕이나 제국을 숭배하도록 미혹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왕이나 국가를 더 믿고 의지하게 하며, 뛰어난 대통령이나 강한 국가가 자신들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준다고 믿으며 살도록 미혹한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16:13). 거짓 선지자는 거짓 복음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는 제일 먼저 속임수와 교리의 혼란을 통하여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로 그들이 참 선지자임을 믿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미혹한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사들을 통해 거짓된 교리와 교훈을 가르쳐 교회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도록 미혹한다(12:15).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거짓 교리, 세상의 교훈과 풍조, 철학, 경험 등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라.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와 기복 사상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유럽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성도들이 없는 예배당은 술집이나 유흥가나 관광지로 전락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 과학에 입각하여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아담의 창조나 노아의 홍수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모두 신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그 뿐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그 표가 없는 자들로 매매를 못하도록 공작한다(16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17-18절)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기했을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로마인들은 헬라어의 알파벳 철자를 숫자로

사용했다. 오늘날 영어로 예를 든다면, a는 1로, b는 2로, c는 3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요한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수를 ‘666’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짐승의 수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 ‘네로 황제’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666이 된다. 네로 황제는 교회를 박해한 인물이었다.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이름의 수 666은 네로 황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 넓은 의미로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3) 부도덕한 음녀와 부패한 바벨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나온 짐승 따르게 하며, 미혹된 자들의 오른 손이나 이마에 666라는 숫자의 인을 친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7:4)을 모방하는 행위이다.

요한은 짐승의 인 맞은 자들을 가르켜 ‘부도덕한 음녀’(17장), 또는 ‘부패한 바벨론’(18장)이라 부른다. 이 부도덕한 음녀나 부패한 바벨론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 이 땅의 최고 행복과 안전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교회로 하여금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유혹한다.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차후 17-18장에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3. 권면과 도전

사단이 그의 세 대리인 짐승과 거짓 선지와 바벨론을 데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다. 이는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의해 세상의 박해와 거짓 가르침의 미혹과 세상 물질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요한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수 24:15)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며 도전한다.

성도들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사단은 한시도 쉬지않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며, 거짓 교훈을 좇도록 미혹하며, 물질을 추구하며 쾌락의 길을 걷도록 유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에 대항하여 끝까지 인내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응하여 바른 교리와 바른 교회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음녀나 바벨론의 유혹에 대응하여 세상과 분리하여 물질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 살아가야 할 것이다.